



한화투자증권

STEPS 모의투자 성과공유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일 경희대 국제학과 학생들과 함께 'STEPS 모의투자 성과 및 전략 발표회'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희대 국제학과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6주간 STEPS로 진행한 모의투자 대회를 마무리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고, STEPS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이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모의투자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 2명에게 동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희대 국제학과 이젠마 교수는 "주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STEPS를 이용해 투자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모의투자를 계기로 학생들이 경제 및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예상수익률 9.35% DLS

키움증권은 글로벌 주가와 유가가 연계된 기타과생결합증권(DLS)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키움증권 제83회 DLS는 유로스톡스 50(EUROSTOXX50)지수, 홍콩항생중국기업(HSCEI)지수,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예상수익률은 세전 연 9.35%이다. 만기는 3년이며,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9.35%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28.05%(연 9.35%)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청약마감일은 오는 7일 오후 1시까지다. /손영기 기자

신한금융투자

연말 해외선물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해외선물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해외선물 이벤트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선물 종목을 3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50명에게 영화티켓 2매 + 팝콘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 종목에는 최근 들어 국내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진 FTSE China A50 선물지수, 닛케이(Nikkei) 225, MSCI 차이나(China), 타이완, 싱가포르, 원·달러, 인도 루피·달러, 중국 위안·달러 등이다. /김문호 기자

# 증시 찬바람에도... 공모주 13% 짹짹한 수익

시초가 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에스엔케이 등 연내 14곳 상장 공모주투자자 옥석 가리기 나서

(12월 IPO 주요기업 공모개요)

종목명	확정/희망공모가(원)	공모금액(백만원)	예상시가총액(십억원)	총공모주식수	공모후주식수	보호예수비율
에스엔케이	34,300~46,800	192,080	770.8~1051.7	5,600,000	22,472,800	71.00%
에이비엘바이오	13,000~17,000	78,000	579.6~758.0	6,000,000	44,587,000	48.98%
위지웍스튜디오	9,000~13,000	19,796	79.2~114.4	2,199,515	8,798,060	52.29%
에어부산	3,600~4,000	18,745	187.5~208.3	5,207,000	52,070,000	46.38%

[자료=유진투자증권]

11월 증시 부진 속에서도 공모주는 13%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12월에도 14개 기업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일찍이 '옥석'을 골라 공모에 참여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12월 상장사 중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 에어부산 등이 기대주로 꼽힌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상장한 18개(스펙, 코넥스 제외) 기업의 11월 수익률은 13.1%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가 대비 11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11월 코스닥 수익률(7.3%)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20.3%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초가는 상장 기업의 첫 거래 개시일 한 시간 전부터 시가 단입가 방식으로 신청을 받은 뒤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주식을 매입하고 싶은 수

요가 많으면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다. 다만 시초가 대비 11월 30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6.1%를 기록했다. 시초가가 과열된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공모가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한 디자인은 시초가 대비 11월 수익률이 -39.1%를 기록했다. 엘엔씨바이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4.2% 높은 2만9800원이었지만 11월 30일 종가는 1만8850원으로 36.7% 하락했다. 노바렉스 역시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34%였지만 11월 수익률은 -32.8%를 기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은 시초가 매입보다 공모 후 매도 전략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공모주에 참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12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총 14개(스펙제외)다.

먼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은 에이비엘바이오다. 회사는 설립 2년여 만에 5개의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6, 7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1만3000원~1만7000원)를 확정하고 12, 13일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비피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비피도는 인체유래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 연구 및 제조, 세컨드 계층으로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미생물·유전체 분석과 제품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오는 17, 18일 공모청약을 실시한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일본 게임업체 에스엔케이(SNK)는 올해 상장사 중 공모규모가 가장 크다. 공모가 최상단(만6800원)기준 2621억원

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에스엔케이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The King of Fighters·KOF)', '메탈 슬러그(Metal Slug)', '사무라이 스피리츠(Samurai Sprits)' 등 1990년대 오락실에서 크게 흥행한 아케이드 게임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라이선스 수익구조가 장점이다. 청약일은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으로 상장을 주관한다. 올해 마지막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지분 46%)이다. 수요예측에서 공모가(3600원~4000원)를 확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청약은 받는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 대표주관사를 맡았고, 공동 주관사는 BNK투자증권이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차세대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 "암 치료 초석될 것"

IPO간담회

에이비엘바이오

내일까지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11일·12일 청약 실시... 19일 상장 글로벌 기업과 '라이선스아웃' 5건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이달 중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6, 7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1만3000원~1만7000원)를 확정하고 11, 12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에이비엘바이오는 차세대 항체 신약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항체 기술 기반의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설립 당시 한화케미칼이 사업을 점하면서 나온 14명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회사가 시작됐고, 이 중 7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내부 조직과 외부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단계별 임상 등을 진행하며 전 임상 단계부터 임상 2상 시험 사이에 신약 후보물질을 조기 기술 이전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의 다양한 구조적 결합 특성을 활용해 최초 3개에 불과했던 파이프라인을 현재 총 23개로 확대했다. 이중항체는 하나의 단백질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로 단일항체보다 결합력과 인체 내 안정성이 높아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단일항체는 하나의 항원만 타깃할 수 있지만 이중항체는 구조적 조합을 통해 다양한 항원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대표 파이프라인인 면역항암 파이프라인은 암세포 특이 발현과 T세포 표면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조절 물질에 동시에 결합하는 'T세포 관여 이중항체', 서로 다른 면역관문 조절 물질들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중항체 형태로 구

축해 암세포나 그 주변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와 극대화를 유도하는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등이 있다. 또 다른 물질인 'ABL001'은 혈관내피 세포성장인자(VEGF)와 신생혈관 형성 과정에서의 신호전달물질(DLL4)에 동일 항원을 결합하는 이중항체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해당 물질은 암 치료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ABL001이 이중항체 분야에서 차세대 업계 최고 기술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다른 주요 파이프라인인 'ABL301'은 업계 최초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뇌관문(Blood Brain Barrier·BBB) 침투 플랫폼 기술이 적용됐다. 에이비엘바이오의 총 공모주식수는 600만주로 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시 10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 대표는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은 연구원 스카우트와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 개발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영기 기자

## 공공기관 추가 이전부지 부동산값 '들쭉'

정부, 수도권 116곳 분류·이전 추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예상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자족 기능을 강화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임기내 수도권 소재 116개 공공기관을 분류,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경

우 예상 대상지 인근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기존 혁신도시 인근이 이전 대상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5일 "공공기관 이전은 아파트, 상가 및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건설사들도 공공기관 인근 지역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활발히 분양 중이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은 9·13대책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례로 한신공영(株)은 세종시 1-

5 생활권 H5블록에서 주상복합 '세종한신더휴 리저브 II' 84 ~ 154㎡, 596가구와 지상 1~2층 스트리트형 상가를 이달 분양한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BRT정류장이 있으며, 방축천 음악분수와 세종호수공원이 가깝다. 정부청사가 밀집한 1-5 생활권 내에 위치하며, 내년 중 행안부(2월예정)와 과기부(8월예정)가 추가로 이전한다. 대우건설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에서 '부산오션시티 푸르지오' 84 ~ 115㎡ 아파트 846가구와 21 ~ 23㎡,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60실을 분양 중이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한 동삼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선다. 대방건설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111번지에서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 시티 M-STREET' 아파트 494구, 오피스텔 1144실, 주거복합단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농업생명 및 식품연구 관련 기관이 위치한 전주완주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며, 내년에는 인근에 전주지방검찰청이 들어선다. 중흥건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C2·3·4 블록에서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 에비뉴'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400여 실 규모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이 자리한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